

사진의 역사를 바꾼 세계 거장 50인

빌프리트 바츠 지음 | 해냄, 2005

사진은 참 묘한 예술이고, 그 역사가 짧은 예술이다. 사진은 글자 그대로 하면 빛(photo)으로 글쓰기(graphy)이다. 그 빛은 비추어서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비추어서 저장한다. 사진의 문제는 빛에 있기는 하지만 빛이 저장하는 순간과 내용에 달려 있다. 사진이 시간의 주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빛과 시간은 얼마나 오묘한가? 하여 사진에 관한 책은 봄에 읽기 좋고, 보기 좋다. 사진은 찍는 것이되 보는 것이고, 보는 때는 봄이 제격이기 때문이다. 이 책이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지가 세상을 지배하는 21세기, 한 장의 사진이 내포하는 의미에는 한계”가 없어 보인다. 이 책 속에는 “수공업에서 시작해 당당히 예술의 한 장르로 자리 잡은 사진, 그 과정을 함께 한 사진가들의 이야기가 사진술의 발달과 함께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역사적으로 보면, “1839년 최초로 공식적인 사진 전시회가 열린 이후”, 이 책은 160여 년 동안 세계 거장 50인의 파란만장한 생애가 만들어낸 역동적인 사진의 역사를 오밀조밀 말하고 있다.

어릴 적 동네에 사진관이 많았다. 오늘날 동네 사진관은 거의 사라져 매우 귀하다. 그것은 사진이 다른 예술장르와 달리 사진기에 힘입어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탓이다. 동네 사진관에 걸려 있는 사진들은 대부분 초상사진인데 엄숙하다. 자신의 초상을 사진 찍어 둔다는 것은 자신이 속한 사회계층에 자신을 귀속시키는 상징행위라고 볼 수 있다. 초상 사진은 가족이 모여 찍은 것부터, 혼자 찍은 사진에 이르기까지 비슷하게 엄숙하다. 필자의 경우, 사진관에 갈 때마다 옷을 단정하게 해야 했으며, 내 얼굴이 박힌 사진을 찾을 때마다 늘 반성해야 했다.

철이 들자, 나는 사진을 찍기보다는 사진집을 보는 일을 좋아했다. 우리나라 작가들 가운데 임흥식 강운구 김근원 안승일 김영수 여동완과 같은 분들의 사진집을 구해서 보았다. 그분들의 사진을 보면 시간이 온통 뒤죽박죽 된다. 과거와 현재의 구분이 애매모호해지기 때문이다. 외국 사진집으로는 열화당에서 나온 손바닥만한 사진가 총서가 있었다. 그 후로는 산악사진에 빠져 앤셀 아담스, 갤런 로웰 등과 같은 작가들의 사진집을 수집하기도 했으며, 건축과 미술에 관한 사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어떤 사진이든 사진을 들여다

볼 때 시간에 대한 이성이 통째로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흔히들 오래된 사진을 빛 바랜 사진이라고 말하는데, 실은 빛이 사진에서 희미해지고 사라질수록 사진은 더 많은 것을 품

게 되고, 말하게 된다. 마치 골동품이 유용성보다 무용성의 시간이 더 길수록 값이 나가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된 사진에 관한 책 가운데 『사진과 사회』(지젤 프로인트)는 책 제목처럼 사진과 사회와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는 좋은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사진은 대량 생산되고 소비되는 중에 그 개념이 희미해졌다. 사진에 대한, 그러니까 빛에 대한 믿음도 많이 사라졌다. 사진은 빛에 의한 진실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만들어진 영상의 도구로서 급속도로 산업화된 위험한 산물이기도 하다. 복제예술이 현대예술의 특징이라면 사진은 그 한 가운데 있다. 수동식 카메라에서 누구나 찍을 수 있는 디지털 카메라로의 변화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디키는 마약과 같은 욕망을 선사한다. 예술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언어를 지닌 사진은 대중들에게 폭발적인 수요를 불러일으키고 동시에 이미지를 조작하는 위험한 예술임에 틀림없다.

『클라시커 50 사진가』는 카메라 렌즈에서 탄생한 순간의 기적, 사진의 역사를 이룩한 세계의 거장 50명을 중심에 놓고 있다. 독일에서 나온 이 책은 1)150년 세계 사진사를 이룩한 위대한 사진가 50인의 작품세계, 2)사진가들의 생애와 일화, 사진가들 간의 영향관계를 흥미롭게 설명한 50편의 글, 3)책 속의 사진 전시회, 200여 컷의 인상적인 사진 작품, 4)사진가들과 함께 성장해 온 카메라 및 사진 기술의 획기적인 발달사, 5)각 사진가들의 업적과 예술사적 의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요약 평가를 담고 있다. 

안치운 | 호서대학교 예술학부 교수, 연구평론가

